

파라미타청소년협회 · 우리는선우, '한·몽 청소년 국제친선 캠프' 현장



한·몽골 청소년들이 8월 14일 몽골 나이람달 수련원에서 열린 입소식에서 손을 맞잡으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 초원에 펼쳐진 한·몽 불심

## 문화체험 · 교류 통한 한마음 불교 확인

입재식 1시간 전, 기다란 현수막이 몽골 울란바토르 간단사 불교대학 강당에 내걸렸다. '넓은 대륙, 높은 기상, 끝없는 초원'이란 글귀도 플랜카드를 장식했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원택)와 우리는선우(이사장 성태용)가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개최한 '한·몽골 국제 청소년 친선 교류 캠프' 부산은 기본, 중국 유학생, 소년 소녀가장들까지 한국의 초·중·고등학교 생 58명이 이국 몽골로 날아 들어왔다.

**# 친란했던 몽골불교 현장에 서다**  
8월 11일 캠프 입재식, 간단사 주지 푸레박 스님(몽골전통불교대학장)은 몽골 대표 한복판에 선 한국 청소년들에게 이 말부터 던졌다.



테리지 국립공원에서 몽골 가족 '게르' 짓기.



간단사 주지 푸레박 스님에게 법문을 듣고 있는 한국 청소년들.



한국 청소년들이 14일 환영식에서 '사물놀이' 공연을 펼치는 모습.



16일 회향식, 한·몽 청소년이 석별의 정을 나누며 포옹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찬란했던 몽골 불교문화 전통이 지나간 그 역사현장 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몽골 민족에게 불교가 최고의 가르침이듯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불교문화전통을 바탕으로 우리 한·몽골 청소년들이 미래불교를 힘차게 이끌어 나갈시다."

이어 우리는선우 윤세원 운영위원장도 "몽골 체험은 자기 변화의 새로운 시도"라며 "무엇을 보고 어떻게 느낄지 캠프 기간 내내 고민해보자"고 주문했다.

**# 불교는 어머니같은 존재**  
양국 청소년들의 동질감, '몽골 반점'에서도 확인됐다. 같은 인종이라는 생각이 몽골어 '후후털버(푸른 반점)' 이야기로 서로가 통했다. 언어는 중요하지 않았다. 전혀 다른 것이 없었다.

**# 몽골문화 모든 것을 느낀다**  
본격적인 몽골 문화체험은 12일 테리지 국립공원에서부터 시작했다. 6개조 나눈 청소년들은 13일 오전까지 승마, 게르 짓기 등으로 몽골을 차근차근 배워나갔다. 이 중 단연 인기는 게르 짓기. 게르의 뼈대인 '한'을 등골에 드리우고, 원형 지붕인 '토오노'를 끈추 세운다. 그리고 양털을 누벼 만든 '에스기'를 덮어 씌운다.

"한 나라의 문화를 알려면, 의·식·주가 어떤 지부터 배우야 한다고 하잖아요. 게르를 직접 지어보니 유목민인 몽골인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알 것 같아요." 유나(17·용인 서원고1년)의 소감 한마디가 꼭 부러졌다.

캠프 사흘째. 청소년들의 몽골 말이 부쩍 늘었다. 꿀 먹은 벼어리였던 아이들의 말문이 트였다. 한국어 발음과 비슷한 몽골말만 나와도 금세 발음이 돼 버렸다. 캠프에 오기 전에 인터넷에서 몽골어 몇마디를 배웠다는 다정(14·명성여중 1년), 몽골 사람만 만나도 연신 '셴 베노?(안녕하세요)'를 외치는 상민(12·서울 대곡초 5년)도 몽골리언이 다 됐다.

**# 비찬때 하르메(애들이 사랑해!)**  
13일 오후 7시, 울란바토르 시 나이람달 수련원으로 돌아온 아이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곧 있을 몽골 아이들과 첫 만남. 잔뜩 긴장하는 눈치였다.

잠시 후, 드디어 만났다. 단단히 베풀었다. 기다리는 동안 몽골말도 짬짬이 익혔다. 하지만 어색한 눈빛만 날랐다. 준비한 인사말은 못하고, 연신 옆 사람과 수근수근이다. 그래도 슬슬 본색(本色)을 드러낸다. 일은(16·대전 보문중 3년)이 여자없이 침묵을 깨다. '비찬때 하르메(애들이 사랑해!)' 양국의 문화 알기는 14일 수련원 극장에서 열린 '몽골 노래 배우기'로 이어졌다. '봄 봐야기쁨을 즐겨요'란 노래가

메뉴얼 올랐다. 몽골 강사가 가락을 가르쳐주지만, 아이들의 반응이 신중치 않다. 러시아 글을 차용한 키릴 문자와 몽골어는 아무래도 배우기 벅거운 모양이다. "가사 뜻은 몰라도 노랫가락은 낫설지 않아요. 한국노랫가락 정서와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본 듯한 느낌은 아마도 우리나라와 몽골이 한 민족이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들게 해요." 회진(16·서울 양정중 3년)의 말이 인상적이다.

아이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화제 거리도 비슷했다. 공부 부담, '한류열풍'의 주인공 영화배우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영락없는 어느 청소년들의 모습이었다. 불교에 대한 생각이 다 마찬가지였다. 양국이 불교의 나라라는 점을 잊지 않고 있었다.

"불교는 엄마와 같은 존재예요. 언제나 넉넉하고 따뜻하게 제 마음을 끌어안아 주거든요. 일주일에 한번씩 울란바토르 간단사에 가는 것도 이 때문이지요." 오유까(15·울란바토르 15학교 8년)는 불교가 '엄마'라고 말했다.

입학하자마자 불교학생회에 들어갔다는 지선(14·명성여중 1년) 이도, 몽골 친구들에게 사물놀이의 진수를 보여주기 위해 한 달 넘게 평과리를 연습했다는 새하(18·이리 남성여고 2년)도 장래 꿈인 디자이너라는 엘카(17·베이징 55중 학교 4년)유학중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들의 양국 문화 체험은 15일 '미니문화축제'로 정점에 달했다. 양국 언어로 이름쓰기, 몽골 닭싸움, 한국음식 맛보기와 한복 소개, 사물놀이 공연 등 서로를 아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입는 옷만큼 그 나라의 문화를 알려주는 데 확실한 방법은 없을 거예요. 몽골 친구들이 몽골 전통의상 '델'과 비교하며 신기해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윤영(18·분당 이우고 2년), 소연(16·분당 청솔중 3년) 자매가 한복 맵시를 뽐내며 이렇게 말했다.

짧지만 한 5박6일, 16일 캠프 회향식에서 청소년파라미타 사무총장 선웅 스님이 '해어지가기 아릅습니까?'란 말에 장내가 숙연해졌다. 그리고 이어진 율회의 악수, 서로를 안아주고, 맞잡은 손을 놓지 못했다. 흘리는 눈물도 뒤아졌다. 그간 쌓인 정으로 회향식은 이내 눈물바다가 됐다. 양국 청소년들의 만남, 서로의 마음속에 한국과 몽골을 깊게 심어주었다.

글·사진/몽골 울란바토르-김철우 기자

제1회 중국 '오대산 불교문화절' 행사 현장



3만여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8월 16일 오대현 대회전에서 제1회 '오대산 불교문화절' 개막식 행사가 거행됐다.

# 인류 화합위해 지혜 모으자

## 韓·中 오대산 지속적인 교류에 합의



월경사 주지 정법 스님(오른쪽)과 송베이산 산사성 부성장은 '오대산 불교문화절' 개막 전날인 8월 15일 만나 한·중 불교 교류 방안을 의논했다.

**# 한국 월경사 1백여명 참석**  
8월 16일 오전 중국 산서성(山西省) 오대현, 고대 중국 불교의 탄생지 중 하나인 오대산에는 흥분된 목소리가 가득했다. 귀뚜사기 울며 처음 '오대산 불교문화절' 행사를 개최했기 때문이다.

기동 모양, 사자를 탄 문수보살 모양, 용 모양 등 화려한 에드빌들이 축제장을 채웠다. 황색 가사를 입은 중국 스님(황교)과 홍색 가사를 입은 티베트 스님(홍

사), 불교문물대전(현통사), 불교예술품대전(원조사), 국제불학세미나(보수사) 등 일일이 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 영산적법·학춤 등 선보여**  
특히 이번 개막식에는 지난 6월 중국 오대산불교협회와 자매결연은 맺은 한국 오대산 월경사의 대표단 1백여 명도 참석했다.

월경사 주지 정법 스님은 이날 "부처님

신라 자랑 울산도 이때 오대산에서 공부하며 문수보살을 진경하는 경행을 했다. 스님은 이후 부처님의 정골사리와 가사, 발우 등을 모시고 신라로 돌아와, 오대산 월경사 등 사찰을 창건했다. 그래서 한국 불자들은 오대산을 문수신앙 최고의 성지로 받들고 있다.

한편 한국 오대산 월경사 주지 정법 스님과 송베이산(宋北山) 산사성 부성장은 8월 15일 만나 한·중 불교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송 부성장은 "한·중 오대산이 역사적 인연으로 이렇게 만나게 됐고, 더 많은 한국 불자들이 오대산 불교문화절 행사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양국 불교발전 방안 의견 나눈**

정법 스님은 이에 대해 "1400여 년 전 자장율사가 위법방구의 정신으로 구법을 한 인연이 이렇게 꽃피는 것 같다"며 "10월 8일부터 한국 오대산에서 문화축제가 3일간 개최되는데, 이 행사에서 중국의 중요 불교 문화제와 유물을 전시하고 한·중 불교 교류 활동을 펼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한국 불자들은 8월 16~19일 대동 운강석굴, 황산 현공사, 태원 현통사와 수상사, 평요 쌍림사와 고성, 북경 계대사 등 중국 주요 불교 유적을 둘러보았다.

글·사진/중국 오대산=강유신 기자



인목 스님 등의 한국 영산적법 시연 모습.



춤과 노래를 선보이는 중국 가무단.

교 2천여 명 등 3만여 명이 이 행사에 참여했다. 축포가 울려 퍼지고 오색 꽃가루가 하늘로 치솟는다.

종합 불교축제인 '오대산 불교문화제'는 그렇게 시작됐다. 19세기 이후 오랜 '침체의 늪'에 빠졌던 중국불교가 '사자후'를 토하며 살아나는 순간이다.

9월 16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축제에는 오대산 불교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뜻 깊은 행사들이 열린다. 서화비결대전(문수

의 자비정신으로 인류화합과 평화를 위해 불교가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한국 불교계는 인목 스님의 영산적법, 범성 스님의 학춤 등을 선보여 중국 불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오대산은 중국 동서남북에 위치한 화산 승산과 함께, 예로부터 대표적인 중국 불교 유적지로 꼽히는 곳이다. 오대산 불교는 당나라 시절 360여 사찰들이 세워지며 전성기를 구가했다.

### 오대산 불교계를 이끄는 스님들

#### ■ 수상사 주지 성종 스님

폐허된 사찰 복원에 헌신  
"오대산 주요 사찰 중 하나인 수상사에는 문화대혁명이후부터 성종(聖宗·사진) 스님이 주석을 하고 있다. 성종 스님은 "문화 대혁명을 겪으며 절에서 쫓겨나오랫동안 숙안치법 농사를 지었

#### ■ 벽산사 주지 미아오광 스님

문수신앙 알리는 계기 되길  
"중국 불교는 조금씩 잠을 깨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불교계의 상황에 대한 오대산 불교계의 대표 '오대산 불교문화절' 미아오광(妙光) 스님(사진)의 말이다. 묘광 스님은 이번 행사에 대해 "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참석해 문수신앙을 폭넓게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 오대산에는 복인 중인 사찰을 포함, 105개의 사찰에 2500여명의 스님들이 수행 정진 중이다.